

성서, 로마 가톨릭교회, 종교개혁자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신학적 고찰

김 희 수

(천안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I. 서론

II. 성서의 관점

1. 예수
2. 사도 바울

III.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

1. 토마스 아퀴나스
2. 후기 학자들

IV. 종교개혁자들의 관점

1. 마틴 루터
2. 필립 멜란흐톤
3. 존 칼빈

V. 결론

• ABSTRACT •

According to the Christian tradition, natural law is a law of justice or a moral principle printed in the human heart from birth by God. Christian theological tradition has thought that the law of God is also printed in the human heart by considering the intense connection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Therefore, they thought that the rational moral law which judges good and evil and right and wrong has been printed in human mind as the law of nature is given to the nature to control it. And they thought that human beings can recognize the natural law by their reason.

The theological tradition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Reformers recognize that there is the natural law given by God. They generally agree that human beings can realize the natural law by themselves without the help of the supernatural revelation. Yet, the Reformers emphasize that the ability of human reason has been weakened by the fall thus they need the help of the supernatural revelation for the full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law.

This thesis will investigate the Christian view on the natural law by studying the resources of the Bible, the Roman Catholic Church tradition and the Reformers.

Key Words: natural law, Jesus, the Apostle Paul, Thomas Aquinas, Martin Luther, John Calvin, Philipp Melancthon

I. 서론

자연법이란 무엇인가?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자연법(natural law)이라는 개념은 자연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the law of natur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타고났으며 인간의 내면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으로서 옳고 그름 판단의 보편적 근거가 되는 근본원칙을 의미한다.¹⁾ 기독교의 신학적 전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마음속에도 기록되어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세계에 그것을 운용하는 자연법칙이 주어진 것처럼,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연법이 인간의 마음속에도 주어졌다고 이해하고, 이성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자연법은 시공과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덕의 보편적 토대로 간주되기도 한다.²⁾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의 자연법사상을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 성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성서의 관점

교부들, 스콜라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 교회법 학자들은 성경이 자연법의 존재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으로 보았다.³⁾ J. Bohatec은 로마서 2:14-5이 전체 기독교 전통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⁴⁾ 그리고 John T. McNeill은 로마서 1:19-22와 2:14-15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연법에 대한 각자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한다.⁵⁾

1. 예수

예수는 음행과 같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마태 19:3-12, 눅 10:2-12). 예수가 이것을 주장하는 데는 결혼 자체가 창조된 인간의 속성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지인 자연법에 기초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혼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는 것 역시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다.⁶⁾

1)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서울: 동문선, 2004), p. 93.

2) Austine Fagothey, *Right and Reason*(Sain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1963), p. 125; Gerard J. Hughes, "Natural Law,"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by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p. 412; 박봉배 외 편, 『기독교윤리학 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pp. 172-174.

3) John T. McNeil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The Journal of Religion*, XXVI (1946), p. 168.

4) J. Bohatec, *Calvin und das Recht*, Feudinger, 1934, p. 5.

5) John T. McNeil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p. 181.

6) Joseph Fuch S.J. *Natural Law: A Theological Investigation*, trans. by Helmut Reckter S.J. and John A. Dowling (New York: Sheed and Ward, 1965), p. 33.

예수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선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고 한 그의 말이 이것을 보여준다. (마가 7:20-23) 그는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다음에 그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마가 3: 3ff.) 이는 그가 인간이 선악 판별력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최후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는 선행자는 생명으로 악행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요한 5: 29) 그러므로 예수는 인간이 무엇이 선인지를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cf. 누가 12:57)

예수는 자연법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적 기준을 제시한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바로 그것이다.(마태 7:12)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의 설명 역시 그의 자연법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마가 2:28)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의식법을 파기하는 한편(마가 7:15) 도덕법의 의미는 더욱 심화시킨다. 산상수훈의 일부도 자연법과 연관되어 있다. 산상수훈은 자연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복수를 금지하는 그의 가르침은 외적 실정법(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과 의도에 의한 행동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마태 5:38-42)⁷⁾

세겔에 대한 그의 태도와(마태 17: 24-27) 하나님의 것과 씨저의 것을 구분하는(마태 22:15-22) 그의 태도에서도 그가 자연법에 의거하여 세속 정부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비록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자연적 수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창조의 가시적인 물질세계와 타고난 이성의 사용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없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을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로마서 1: 18-32)⁸⁾

바울은 이방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롬 1:18),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함(갈 4:15, 살전 4:5, 고전 1:21)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롬 1:28)을 꾸짖는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빠지게 되는 온갖 종류의 악⁹⁾을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한다고 한탄한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롬 1:32)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도 없었으며 기독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계시도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덕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계시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이 있음과 이방인들이 신 존재와 그 도덕률을 알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자연법에 근거한 선행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고 말한다.¹⁰⁾ 바

7) Ibid., pp. 35-36.

8) Ibid., p. 15.

9)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위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롬 1:29-31)

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며”(롬 2:14), 그것을 ‘본성’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다.(롬 2:14, 27절 참조) 그들이 비록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롬 2:14), “율법이 요구하는 것[자연법]이 그들의 가슴에 기록되어 있다.”(롬 2:15)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율법이다.”(롬 2:14)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자연법]의 행위를 나타내준다.”(롬 2:15).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때 바울이 의미하는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실정법(the positive law of God) --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과 원래적인 인간에 주신 법을 총괄한 것 --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실정법(positive law)’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죄와 관련해서 사실상으로는 ‘모든 종류의 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법에 당연히 자연법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바로 이 총괄적인 법에 직면해 있으며, 그 법에 의해서 무엇이 선인지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롬 7: 22 ff., 25) 로마서 5장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 5장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세상에도 개인적 죄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죄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자연법인 것이다.¹¹⁾ 바울은 일반적으로 그의 도덕적 가르침을 구약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천부적인 자연법에 의거해서 설교한다. 도덕적 의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차이가 없다. 모두가 다 자연법을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고전 6:13-20), 이는 그리스도인에 의한 행위이건 비그리스도인에 의한 행위이건 육체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은 자연법에 저촉되는 부도덕함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를 멈추라고 경고한다.(롬 13:12-13) 엄격한 의미에서 법과 정의는 자연법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행위는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정의를 헤치는 죄가 되는 것이다.¹²⁾

III.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점

1.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as: 1225-1274)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사람이 이성을 부여받았으므로 초자연적인 은혜의 도움 없이도 자연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들의 첫 번째 원인자로서 소유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특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더 완전한 지식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승의 삶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¹³⁾

10) Joseph Fuch S.J. *Natural Law: A Theological Investigation*, p. 20.

11) *Ibid.*, p. 21.

12) *Ibid.*, pp. 27-28.

13) Thomas von Aquinas, *Summa theologiae*(이하 S.T.), I, Q. 12, articles. 12, 13. Thomas von Aquinas,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복된 삶과 덕행을 위한 외적인 지침으로써 네 가지 법, 즉 영원한 법, 자연법, 인간의 법, 하나님의 법(성경)을 주셨다고 말한다. 자연법은 이 네 가지 법 중의 하나에 속한다. 토마스가 말한 네 가지 법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원한 법(eternal law)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서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법이며 우주의 ‘청사진’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즉 신적인 이성 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통치계획은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법의 성격을 띤다. 신적 이성은 아무것도 시간에 의해 인식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법은 마땅히 영원한 법이라고 해야 한다.¹⁴⁾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지혜로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며 마치 기능공이 그의 기술의 산물을 주장하듯이 만물을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한 법은 모든 행동과 운동의 감독자로서 바로 신적 지혜의 계획인 것이다.¹⁵⁾

(2) 자연법(natural law)

자연법은 이성적인 피조물들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법은 영원한 법이 창조세계 안에 구현된 것이며 인간의 이성 에 의해서 이해되고 분별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는 모든 사물들은 영원한 법에 의해 지배받고 판단 받는다. 모든 사물들에 새겨져 있는 영원한 법으로 인하여 모든 사물은 각자에게 적절한 행동과 목적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향을 볼 때 모든 사물이 특정한 방식으로 영원한 법에 참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는 영원한 법이 참여해 있으며 영원한 법의 참여에 의해 이성적 피조물은 정당한 행동과 목적을 위한 본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인 피조물이 영원한 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인간의 본성 안에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는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자연법이란 바로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 안에 참여하는 것이다.¹⁶⁾

이성적 피조물은 두 가지 방식으로 영원한 법에 종속되어 있다. 첫째로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법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으며, 둘째로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는 영원한 법과 일치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⁷⁾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선을 추구하고 실천하며 악은 피하라”는 것이다. 자연법의 다른 모든 계율들은 이것에 근거한다.¹⁸⁾

Summa contra gentiles, bk. 1, chapters 3, 4, 7.

14) *S.T.*, I-II, Q. 91, art. 1.

15) *Ibid.*, Q. 93, art. 1.

16) *Ibid.*, Q. 91, art. 2.

17) *Ibid.*, Q. 93, art. 6.

(3) 인간의 법(human law)

인간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며 실정법이다. 인간의 법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자연법에 근거하여야만 한다.

사변적인 이성을 통해 본성적으로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원리들로부터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여러 지식의 결론을 끌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은 공통된 증명할 수 없는 자연법의 법칙으로부터 어떤 문제에 대한 보다 특수한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 고안된 이러한 특수한 결정을 인간의 법이라 할 수 있다.¹⁹⁾

(4) 하나님의 법(divine law)

이것은 성서에 계시된 특별한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부분적으로는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는 자연법과 병행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초월한다.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연법과 인간의 법 이외에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

예기치 않은 특수한 문제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상이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서로 상이한 모순된 법을 만든다. 이러한 모순을 피하고 확실한 근거 위에서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의 인도를 필요로 한다.²⁰⁾

토마스 아퀴나스는 윤리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야말로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만들어 주는 근거라고 본다. “인간 행동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다.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이성에 속하며 그것이 행위의 제1원리이다. 따라서 법은 이성의 어떤 기능이어야 한다.”²¹⁾

그러면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일한가?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의 이해와 적용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연법은, 그것의 일반적인 첫 번째 원칙들에 관한 한, 옳은 행동의 기준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며 또 동일하게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들로 들어가게 되면 옳은 행동의 기준으로서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이성이 정욕이나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타락하였거나 자연의 악한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빌린 돈은 갚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돈을 갚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것이다.²²⁾

18) Ibid., Q. 94. art. 2.

19) Ibid., Q. 91, art. 3.

20) Ibid., Q. 91, art. 4.

21) Ibid., Q. 90, art. 1.

22) S.T., Q. 94. articles. 4, 5, 6.

2. 후기 학자들

교황들은 자연법이 인간의 가슴에 기록되었다고 보았다.²³⁾ 인간은 죄나 정욕에 의해서 이성
에 의해서 눈이 멀지 않는 한은,²⁴⁾ 자신의 가슴 속에 기록된 자연법을 해독할 수 있다고
말한다.²⁵⁾ Leo XIII는 자연법에 의거하여 사유재산권, 정당한 품삯, 사회와 협회를 조직할
권리, 애국심, 생명권, 결혼할 권리 등을 설명하였다.²⁶⁾ 자연법은 모든 인간을 위한 대법원
이며²⁷⁾ 현재와 미래의 상황에 따라 변화는 법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이라고 말한다.²⁸⁾
이 자연법은 모든 법의 기준이며²⁹⁾ 모든 사법체계의 판단기준이다.³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을 인간에 의한 창조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이며³¹⁾ 하나님
의 지성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³²⁾ 그리고 이 자연법은 타락한 존재로서의 인간과 구원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이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속
성은 약화되기는 했지만 파괴된 것은 아니다.³³⁾ 자연법은 초자연적인 법, 구원의 법, 기독
교의 법, 계시된 법, 성경의 법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그리고 자연법은
이러한 것들 없이도 알 수 있다.³⁴⁾

IV. 종교개혁자들의 관점

자연법과 관련해서는 종교개혁자들과 그 전 학자들 사이에 사실상 단절이 없다. 어느 종교
개혁자도 자연법에 대해서 심하게 공격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진 도
덕법(자연법)을 기꺼이 인정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연법을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가르침
의 뼈대로 삼았다.³⁵⁾ 이제 개신교 신학전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방향을 설정한 주요 종교
개혁자들의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23) 자주 되풀이되는 선언이다. Cf. Pius XI, *Divini Redemptories*, AAS 29(1937), 76; Pius XII, Allocution, 24 December 1941, AAS 34 (1942), 16.

24) Pius XI, *Mit brennender Sorge*, AAS 29(1937), 159.

25) Ibid.

26) Cf. Encyclicals of Leo XIII in ASS, 특히 그의 Encyclical, *Rerum novarum*, ASS 23 (1891), 641-70을 보
라.

27) Pius XII, Allocution, 13 October 1955, AAS 47(1955), 769.

28) Pius XII, Allocution, 19 October 1953, AAS 45(1953), 749; Allocution, 3 October 1953, AAS
45(1953), 739.

29) Pius XII, Allocution, 13 October 1955, AAS 47(1955), 769.

30) Pius XII, Allocution, 13 November 1949, ASS 41(1949), 607.

31) Cf. Pius XI, *Casti connubii*, AAS 22(1930), 539; Pius XI, *Quadragesimo anno*, AAS 23(1931), 191; Pius
XII, Allocution, 1 May 1941, AAS 33(1941), 197; Pius XII, Allocution, 19 October 1953, AAS
45(1953), 749.

32) Pius XII, Allocution, 1 May 1941, AAS 33(1941), 196.

33) Pius XII, Allocution, 25 September 1949, AAS 41 (1949), 555.

34) Joseph Fuch S.J. *Natural Law: A Theological Investigation*, p. 11.

35) John T. McNeil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The Journal of Religion*, XXVI
(1946), p. 168.

1.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마틴 루터는 *Lectures on Romans*(1513-15)의 로마서 2:15에 대한 주석에서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에 천부적으로 그리고 지울 수 없도록 찍혀있다(*impressa*)”고 선언한다.³⁶⁾ 그는 또한 십계명에 나타나는 신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지식인 보편적인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⁷⁾ 그는 “세계에 평화와 질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터키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보편법, 성경의 신성한 법, 그리고 자연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³⁸⁾

루터는 자연법과 기독교의 율법을 구분하였다. 루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연법에 근거한 국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Saxon들은 *Sachsenspiegel*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이다.³⁹⁾

그렇다면 루터는 무엇이 자연법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한 두 가지 큰 계명과 같은 예수님의 몇몇 가르침들이 자연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루터는 그 당시의 전통대로 황금률을 자연법으로 받아들였다.⁴⁰⁾ 루터는 *Great Sermon on Usury*(1520)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한 누가복음 6:31과 마태복음 7:12을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자연법”으로 제시한다.⁴¹⁾ 다른 곳에서 그는 이 황금률이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법”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⁴²⁾

이 아이디어는 그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글인 *Treatise of Secular Power*(1523)에 사용되었다. “자연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내가 대접 받고싶은대로 내가 먼저 행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재산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랑과 자연법이 항상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대해야한다고 말한다. 모든 법과 그 해석자들 위에 상호간의 사랑(*mutual love*)이라는 자연법이 서 있는 것이다. “비록 모든 법률 서적을 탐독하고 법학자들을 경청하였을 지라도, 만약 사랑과 자연법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이다.”⁴³⁾

36) Martin Luther, *Vorlesung zum Römerbrief*, ed. by J. Ficker(Leipzig, 1908), p. 20.

37) Martin Luther, *Die erste Disputation gegen die Antinomer*(1537), *Werke*(이하 *W.A.*, Weimar Ausgabe), XXXIX, Part I, p. 374.

38) Martin Luther, *Admonition to Peace*(1525), *W.A.*, XVIII, pp. 304, 310 f.; *Works of Martin Luther*, IV(Philadelphia, 1931), pp. 207, 226 f.

39) Martin Luther, *Eine Epistel aus dem Propheten Jeremia von Christi Reich und Christlicher Freiheit ausgelegt*(1527), *Sämtliche Werke*(이하 *Erlangen*), XLI, 216.

40) 황금률을 자연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것이었다. Gratian은 그의 책 *Decretum*의 시작부분에서 자연법이 “율법서와 내가 대접 받고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한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Decretum* I. 1.> 루터도 습관적으로 이와 같은 견해를 펴려하고 있다. John T. McNeil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p. 170.

41) Martin Luther, *Great Sermon on Usury*(1520), *W.A.*, VI, 49; *Works of Martin Luther*, IV, 53.

42) Martin Luther, *Kurze Auslegung der Epistel an die Galater*(1525), on Gal. 1:14, *Werke*, ed. Walch, IX, 302. cf. *W.A.*, XVIII, 80f.: “그리스도 자신이 또한 이 자연법 안에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들을 이해한다.”

43) Martin Luther, *Treatise of Secular Power*(1523), *W.A.*, XI, 280; *Works of Martin Luther*, III, 272-73.

루터는 *Commentary on Galatians*(1535)에서 인간의 가슴이 매우 죄악됨을 지적하면서 자연법 개념에 대한 자신의 주장의 강도를 약화시켰다. 여기에서 그는 이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자연적 지식(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자신들이 남에게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연법”이 “인간의 법의 기초”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너무 타락하고 장님이어서 그것이 타고난 지식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혐오한다”고 말한다.⁴⁴⁾

그러나 루터는 정치와 공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룰 때는 자연법을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며 이성 자체를 더 높이 평가한다. 출애굽기 18장을 해설하면서 루터는 심지어 세상적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성경이나 사도들의 지도가 없어도 이성이 그들에게 살인자와 도둑을 처벌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⁴⁵⁾ 루터의 시편 101편 강해 역시 이방인들의 법과 통치에 있어서의 (고전적)지혜를 호감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세상적 통치에 대해서 배우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책들과 기록들을 읽어라. 옛 제국의 법들 역시 그것들로부터 유래된 것이었다.” 특별히 그는 호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모스테네스, 버질, 키케로, 리비, 율피안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교사, 즉 “세상적 정부들을 위해서 주신 사도들, 선지자들, 신학자들, 설교자들”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위한 믿음과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방인의 책들은 “현세적인 선을 위한 덕과 법과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다.⁴⁶⁾

McNeil은 루터가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습관적으로 자연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보며, 루터에게 있어서 성서와 자연법은 조금도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⁴⁷⁾

2. 필립 멜란흐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

자연법에 대한 멜란흐톤의 생각에는 옛 학자들에 대한 그의 지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많은 주석들에서 그가 참고한 키케로의 영향이 배어 있다. 자연법에 대한 멜란흐톤의 관심과 그가 차지하는 무게와 영향력이 초기 개신교 윤리학에 자연법의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었다.⁴⁸⁾ 그는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연법을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자연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⁴⁹⁾

멜란흐톤은 고전적인 전통대로 법을 자연법, 신법(divine law), 인간의 법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자연법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하는 보편적 판단이며 도덕적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본적인 법”이라고 정의한다.⁵⁰⁾ 이외에도 멜란흐톤은 자연법을 여러 가지 표현을 빌어서 정의하는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어진 빛이며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발자국

44) Martin Luther, *Commentary on Galatians*(1535), *W.A.*, XL, Part II, p. 66f.

45) Martin Luther, *Erlangen*, XXXV, pp. 383-84.

46) Martin Luther, *W.A.*, LI, pp. 242-43.

47) John T. McNeil,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p. 172.

48) Ibid.

49) Philipp Melancthon, *Loci communes*(1535), *Corpus Reformatorum*(이하 C.R.), XXI, 687 f., 711f.

50) Philipp Melancthon, *Melanctoni opera*, C.R., XXI, pp. 23-28, 116 ff.

과 가르침,”⁵¹⁾ “모든 인간의 가슴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기록된 모세의 율법 혹은 십계명과 일치하는 법,”⁵²⁾ “신이 우리 가슴에 심어준 도덕적 판단을 위한 기준”⁵³⁾ 등이다. 그리고 그는 이 기준, 즉 자연법이 다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1) 신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2) 모든 사람들은 사회 속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3)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⁵⁴⁾

그는 수학 같은 이론적인 공식들처럼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듯이 도덕법칙들에도 “자연법이라고 정당하게 불릴만한 보편적인 원칙들, 근원적인 결론, 또는 인간 행동의 규칙들”이 있다고 보았다.⁵⁵⁾

멜란흐톤은 자연법이 “옳은 행동원칙에 대한 자연적 개념과 이러한 원칙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십계명이 이러한 개념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십계명이 자연법의 개요이며 요약이라고 본다.⁵⁶⁾ 그러므로 그는 자연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참으로 죽음을 면치 못할 죄라고 주장한다.⁵⁷⁾

멜란흐톤은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의 이해력이 흐려졌으며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을 구별하는 우리의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주의 영원한 정신이며 창조자요 보호자이며 지혜롭고 선하며 정의롭고 순종해야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참된 지식을 주었지만, 인간은 이러한 참된 이해를 상실하였고 불의가 인간을 좌우하게 되었으며 인간은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빛(자연법)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조화를 상실하고 재난과 악에 처하게 되었다.⁵⁸⁾ 손상된 상태에 있는 자연 속에서는 신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설치된 빛인 자연법 또한 불명료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멜란흐톤은 그러나 자연법의 상당부분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⁵⁹⁾

3.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칼빈은 인간의 본성적인 재능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다고 한 어거스틴의 견해에 동의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거룩함이나 구원을 위해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지혜롭고 정의로운 행동을 위해서는 흔히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비록 쇠약해지기는 했지만 인간의

51) Philipp Melanchthon, *Epitome moralis theologiae*(도덕신학 요약, 1538), C.R., XVI, p. 23ff.

52) 그러나 그는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요구하는 그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자연법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Philipp Melanchthon, *Apology of the Augsburg Confession*(1532).

53) Philipp Melanchthon, *Loci communes*(1521), *Melanchtoni opera*, C.R., XXI, pp. 23-28, 116 ff.

54) Ibid.

55) Ibid.

56) Philipp Melanchthon, *Epitome moralis theologiae*의 두 번째 판(1540), C.R., XVI, cols. 63ff., 72.

57) Philipp Melanchthon, *Commentary on Romans*(1532), C.R., XV, 562ff., 577f., 631ff.; Th. Nickel, *Philippi Melanchtonis Commentarii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Leipzig, 1861), pp. 67f., 76f., 83f., 136ff.

58) Philipp Melanchthon, *Loci communes*(1535), C.R., XXI, pp. 687f., 711f.

59) Philipp Melanchthon, *Epitome moralis theologiae*(도덕신학 요약, 1538), C.R., XVI, 23ff.

이성은 여전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간의 번쩍이는 섬광(sparks)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며 이 빛이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요 짐승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입증한다. 인간의 지성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과 ‘상식’을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 원래의 본성 중에서 남아 있는 이 부분이 왜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질서 있는 사회를 인간이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며, 왜 국가와 개인들이 모두다 법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동의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법의 씨앗은, 교사나 입법자가 없더라도, 이미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공평한 규범을 인정하며, 정치적 질서의 씨앗이 모든 사람 속에 심어져 있음과 어느 누구도 이성의 빛이 결여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진리이다.⁶⁰⁾

로마서 1:19-22에 의거하여 칼빈은 모든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각자의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표시를 발견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을 주셨다.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한 아이디어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모든 나라들과 계층들에 보편적인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천부적인 추구와 인식이 가지는 일반적인 한계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칼빈은 로마서 2:14-15를 모두가 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의 가슴속에 나면서부터 생성되어져 있는 ‘정의와 정직에 대한 어떤 개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 해석한다. 정의에 대한 이러한 암시 또는 고시들은 “인간의 가슴에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더 나아가, 칼빈은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인도해준 율법을 “대신하는” “정의에 대한 천부적인 빛(natural light)을 가졌으며,”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법과 기록된 법을 비교하는 것으로 본다.⁶¹⁾

자연법에 대한 권위 있는 증언으로서의 십계명의 역사적 역할은 칼빈의 도덕법에 대한 전체적인 언급에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적인 법(interior law)은 어떤 면에서 두 돌판(십계명)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⁶²⁾ 무지함 속에서도 인간은 자연법에 의거하여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자연법만으로는 너무 애매한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법을 주셨으며 그것을 우리의 이해와 기억 위에 찍어주셨다.”⁶³⁾

이와 유사하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주석에서 칼빈은 십계명을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자연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율법이 기록되기 전에는 인간은 율법의 요구사항을 쉽게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영원토록 증거하기 위해서였다.⁶⁴⁾ 신명기 19장에 대한 세 번째 설교(1555)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록된 율법으로 주신 것을 모든 인간의 가슴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세가 가르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받게 되었

60) John Calvin, *Institutes*, II, ii, 12-13; G. Baum, E. Cunitz, and E. Reuss, ed., *Calvini opera*(Brunswick, 1863-1900), II, 195ff.

61) Calvin, *Commentary on Romans*(1539); *Opera*, XLIX, 23 ff., 37 f.

62) *Institutes*, II, viii, 1; *Opera*, II, 267.

63) *Ibid.*

64) Calvin, *Mosis reliqui libri quattuor*(1563); *Praefatio in legem*(on Deut. 31:10); *Opera*, XXIV, 230.

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세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공평의 원칙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개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모세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관습 사이의 공통점들은 타고난 정의감과 양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⁶⁵⁾

칼빈은 제반 법들의 이면에 깔려 있는 원칙은 공평함(equity)이며 법들은 공평함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공평함은 천부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적인 법규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조절되고 서로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평함을 성취하기 위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자연법,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대한 증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공평함에 대한 총체적인 원칙은 그 하나님의 법(도덕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공평함만이 모든 법규들의 범주(scope)요 규칙이며 목적이 되어야 한다.⁶⁶⁾

칼빈은 ‘공평함’이라는 어휘를 ‘자연법’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십계명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도덕법을 모든 법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초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칼빈은 모세의 계명과 보편적으로 인정된 범죄를 처벌하는 여러 민족들의 법들 사이의 공통점을 언급한다. 그 법들이 다양하기는 해도 동일한 목표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법 유지에 적절한 그러한 다양성을 싫어하는 사람은 공동선의 적이다.⁶⁷⁾

V.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성서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학적 전통,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은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인 자연법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학적 전통과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 전통은 둘 다 이성이 원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자연법을 인식할 능력을 상당히 상실하였음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윤리는 상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치, 종교,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인간의 윤리 도덕적 판단에는 차이, 즉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일부다처제, 음주문제, 낙태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 등이 이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살인하지 말라” 등과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적인 영역도 초월하여 인정되고 준수되는 보편적 윤리원칙들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옳고 그름 판단의 보편적 기준이 되는 자연법이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인간이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⁶⁸⁾

65) *Opera*, XXVII, 568 ff.

66) *Institutes*, IV, xx, 14-16; *Opera*, II, 1164-67.

67) *Ibid.*

68)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 pp. 120-121.

참고문헌

- Baum, G., Cunitz, E., and Reuss, E., ed., *Calvini opera*, II. Brunswick, 1863-1900.
- Beach, Waldo and Niebuhr, H. Richard. *Christian Ethics*.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1973.
- Bohatec, J. *Calvin und das Recht*. Feudinger, 1934.
- Calvin, John. *Commentary on Romans*(1539);
_____. *Institutes*.
_____. *Mosis reliqui libri quattuor*(1563).
_____. *Opera*, II.
_____. *Opera*, XXIV.
_____. *Opera*, XXVII.
_____. *Opera*, XLIX.
_____. *Praefatio in legem* (on Deut. 31:10).
- Enders, E. L. *Dr. Martin Luther's Briefwechesel*, XII. Frankfort a. M., 1884-1932.
- Fagothey, Austine. *Right and Reason*. Saint Louis: The C. V. Mosby Company, 1963.
- Fuch, Joseph, S.J. *Natural Law: A Theological Investigation*, trans. by Helmut Reckter S.J. and John A. Dowling. New York: Sheed and Ward, 1965.
- Hughes, Gerard J. "Natural Law,"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Ethics*, ed. by James F. Childress and John Macquarri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Leo XIII, Encyclicals in ASS 23 (1891)
_____. *Rerum novarum*, ASS 23 (1891)
- Luther, Martin. *Admonition to Peace*(1525), *Werke*, XVIII.
_____. *Commentary on Galatians*(1535), *Werke*, XL.
_____. *Die erste Disputation gegen die Antinomer*(1537), *Werke*, XXXIX, Part I.
_____. *Eine Epistel aus dem Propheten Jeremia von Christi Reich und Christlicher Freiheit ausgelegt* (1527), *Sämmtliche Werke*, XLI.
_____. *Great Sermon on Usury*(1520), *Werke*, VI.
_____. *Kurze Auslegung der Epistel an die Galater*(1525), on Gal. 1:14, *Werke*, ed. Walch, IX.
_____. *Sämmtliche Werke*, XXXV.
_____. *Treatise of Secular Power*(1523), *Werke*, XI.
_____. *Vorlesung zum Römerbrief*, ed. by J. Ficker. Leipzig, 1908.
_____. *Werke*, LI.
_____. *Works of Martin Luther*, IV. Philadelphia, 1931.
- McNeill, John T.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The Journal of Religion*, XXVI (1946)
- Melanchthon, Philipp. *Apology of the Augsburg Confession*(1532).
_____. *Commentary on Romans*(1532), *Corpus Reformatorum*, XV.
_____. *Epitome moralis theologiae*(1538), *Corpus Reformatorum*, XVI.
_____. *Epitome moralis theologiae*, 2nd ed.(1540), *Corpus Reformatorum*, XVI.
_____. *Loci communes*(1521), *Melanchthoni opera*, *Corpus Reformatorum*, XXI.
_____. *Loci communes*(1535), *Corpus Reformatorum*, XXI.

_____. *Melanchthoni opera, Corpus Reformatorum*, XXI.

Pius XI, *Casti connubii*, AAS 22(1930)

_____. *Quadragesimo anno*, AAS 23(1931)

_____. *Divini Redemptories*, AAS 29 (1937)

_____. *Mit brennender Sorge*, AAS 29(1937)

Pius XII, Allocution, 1 May 1941, AAS 33(1941)

_____. Allocution, 24 December 1941, AAS 34(1942)

_____. Allocution, 25 September 1949, AAS 41 (1949)

_____. Allocution, 13 November 1949, ASS 41(1949)

_____. Allocution, 3 October 1953, AAS 45(1953)

_____. Allocution, 19 October 1953, AAS 45(1953)

_____. Allocution, 13 October 1955, AAS 47(1955)

Thomas von Aquinas. *Summa contra gentiles*.

_____. *Summa Theologiae*.

김희수, 『기독교윤리학의 이론과 방법론』(서울: 동문선, 2004)

박봉배 외 편, 『기독교윤리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7.

Beach, Waldo and Niebuhr, H. Richard, 김중기 역 『기독교윤리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K C I